GYRI ISSUE BRIEF
이슈브리프

제 29호 2021.04

고양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정철(행정학 박사)
jclee@gyri.re.kr

시민정책연구실 위촉연구원 조동익(행정학 석사)
dongik22@gyri.re.kr

Contents

Ⅰ.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Ⅱ. 고양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분석
Ⅲ.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Ⅳ. 고양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및 대응정책
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GYRI 고양시정연구원
GOYANG RESEARCH INSTITUTE

요 약

지난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을 관통하며 국내외 위기 의식을 고조시키고, 사회 운영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기간으로 진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사례가 처음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2월과 8월 1차 유행과 2차 유행을 경험한 데 이어, 11월말부터 3차 유행을 경험하였으며, 최근 4월 11일 기준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0명 후반대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일상 방역 노력과 백신 접종 확대 추진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의 유행에 대한 대응과 방역 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최신의 첨단과학기술력과 진단검사를 결합하여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속하고 대규모의 검사와 추적, 전파 차단 노력을 실시함에 따라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에 가장 잘 대응한 성공적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부는 재난 대응 체계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역학 전문 조사관의 부족, 방역 컨트롤 타워의 혼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조직 구조상의 문제를 경험한 바 있으며, 역학 방역 관련 전문역량의 확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민·관 및 지자체 간 협력 등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예방접종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책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백신 관련 안전성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21년 4월 기준,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개요, 고양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특징, 2021년 2월 26일부터 시작된 백신접종 현황을 정리·진단하였다. 그리고 고양시 내 백신 접종 추진 현황을 비롯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리·대응을 위한 시민 안심 정책 사례들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신종 재난에 대비하여 요구되는 감염병 역량 강화 노력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역사회 내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감염병 유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이에 대해 가장 선제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체로서 지자체에 충분한 대응 체계 및 권한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소 중심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및 보건의료 대응 네트워크 구축 및 권한 확대, 백신 접종 확대 및 기피현상 해소 노력,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노력 등을 논의하였다.

Ⅰ. 국내 코로나19(COVID-19) 발생 현황

▢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1년 4월 10일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총 101,141명으로 집계됨

- 2021년 4월 10일 기준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662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경기도 지역의 확진자가 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98명), 부산(56명), 경남(44명) 순으로 확인됨
- 누적 확진자 101,141명 중 서울 확진자가 32,8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28,523명), 대구(8,894명), 인천(5,066명) 순으로 확인됨

○ 2021년 4월 10일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15명으로 서울과 경기에서 3명, 충북, 경남 순으로 보고됨

- 신규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체 신규 확진자의 약 2.22%로 확인되었으며 누적 해외 확진자는 7,804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의 약 7.16%로 확인됨
-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발생 인구는 210.13명으로 보고되었으며 대구(371.97명), 서울(347.84명), 경기(227.90명) 순으로 확인됨

<표1>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20.01.03. 이후 누계, `21.04.10.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신규	662	198	56	4	24	1	13	25	4
누계	101,141	32,843	4,145	8,894	5,066	2,090	1,465	1,158	29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99	6	10	15	23	7	26	44	7
누계	28,523	2,363	2,207	2,575	1,537	886	3,486	2,989	616

〈출처〉 질병관리청(2021).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p.1.

<표2> 지역별 확진자 현황(`20.01.03. 이후 누계, `21.04.10. 기준)

(단위: 명)

지역	금일 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98	3	33,857	(31.08)	347.84
부산	56	0	4,301	(3.95)	126.06
대구	4	1	9,063	(8.32)	371.97
인천	24	0	5,335	(4.90)	180.47
광주	1	0	2,234	(2.05)	153.36
대전	13	0	1,523	(1.40)	103.31
울산	25	0	1,258	(1.15)	109.67
세종	4	0	325	(0.30)	94.94
경기	199	3	30,197	(27.72)	227.90
강원	6	0	2,444	(2.24)	158.65
충북	10	2	2,317	(2.13)	144.87
충남	15	0	2,763	(2.54)	130.18
전북	23	0	1,656	(1.52)	91.12
전남	7	0	963	(0.88)	51.64
경북	26	0	3,672	(3.37)	137.92
경남	44	2	3,157	(2.90)	93.92
제주	7	0	653	(0.60)	97.35
검역	0	4	3,227	(2.96)	-
총합계	662	15	108,945	(100)	210.13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가능

〈출처〉 질병관리청(2021).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p.12.

○ 코로나19 발병 이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2~3월)의 경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하였지만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난 2차 대유행(8월), 3차 대유행(11~12월)의 경우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발생인원 및 확산속도 또한 1차 대유행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3차 대유행 이후 `21년 2월 보건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이 발생할 시 하루 최대 4,000명을 상회하는 확진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4월 초부터 발생인원이 증가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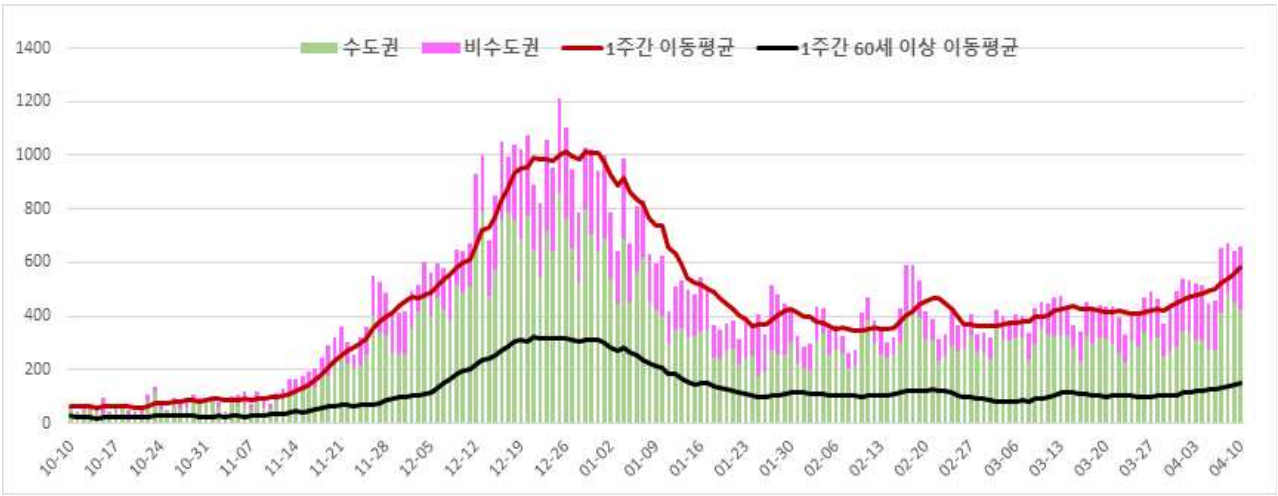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진 추세의 1주간 이동평균[1]을 살펴보면, 3차 대유행 이후 감소하였지만 100명대 미

만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고 2~300명 수준을 계속하여 상회함에 따라 대유행의 발생 가능성 및 위험을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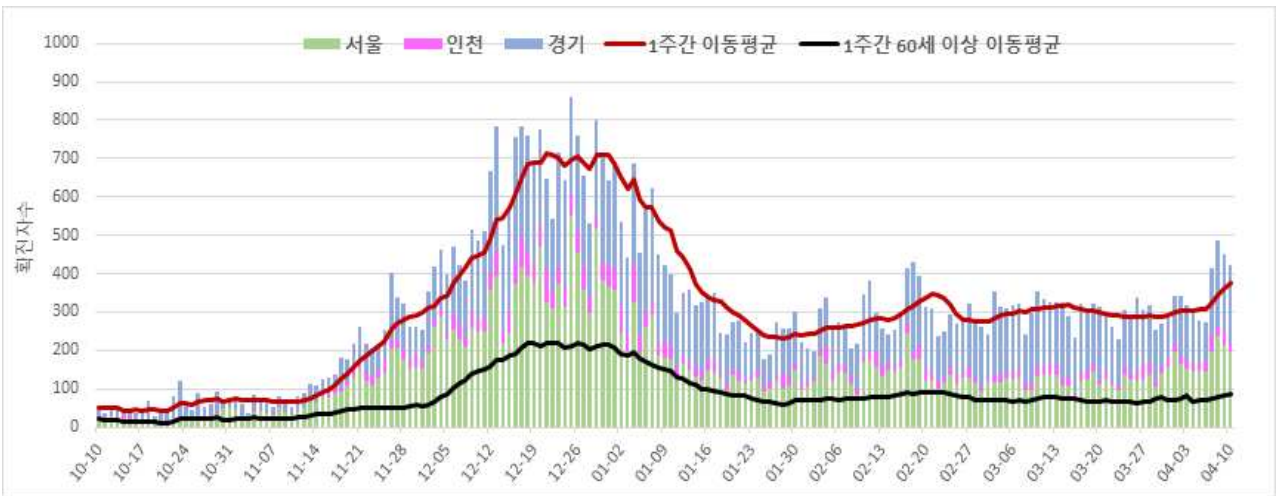
-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확진자의 경우 3차 대유행 시기에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확진자 규모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고 3차 대유행 초기 시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비수도권 확진자의 경우 수도권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확진자 규모는 적지만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수도권 지역과 유사하게 증가 폭이 확대된 이후 최근까지 가시적인 감소세로 전환되는 데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진단됨

<그림1> 전국·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확진자 현황(04.10 기준)

전국 확진자현황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확진자현황 (서울, 인천,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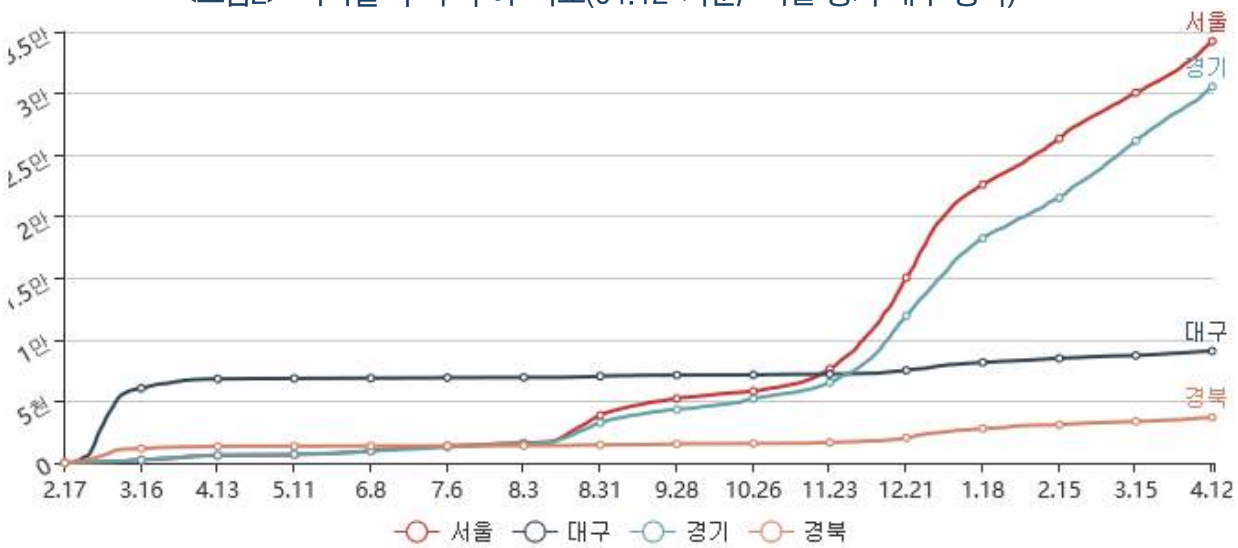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2021).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p.13.

1) 1주일 간 확진자 평균으로 해당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20년 8월 2차 대유행 당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년 11월 3차 대유행 시기에 2차 대유행 당시보다도 더욱 크게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대구 지역의 경우 1차 대유행 당시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3월 중순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그림2> 지역별 누적 추이 비교(04.12 기준/ 서울·경기·대구·경북)



〈출처〉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 대한민국 지역별 누적 추이(https://coronaboard.kr/)
접속일: 2021.04.12.

○ 4월 10일 기준 남성 신규 확진자는 336명, 여성 신규 확진자는 341명으로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 확진자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40대가 126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50대(116명), 60대(96명), 20대(88명) 순으로 발생하고 있음

- 60세 이상 고령층 167명(24.67%), 40세 이상 60세 미만 중장년층 242명(35.72%),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 164명(24.22%), 20대 미만 아동 및 청소년층 104명(15.34%)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활동량이 많은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표3>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 현황(04.10. 기준)

(단위: 명)

구분		금일 신규	(%)	확진자 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677	(100)	108,945	(100)	210.13
성별	남성	336	(49.63)	54,081	(49.64)	209.11
	여성	341	(50.37)	54,864	(50.36)	211.14
연령	80세 이상	30	(4.43)	4,906	(4.50)	258.32
	70-79	41	(6.06)	8,000	(7.34)	221.78
	60-69	96	(14.18)	16,875	(15.49)	265.99
	50-59	116	(17.13)	20,084	(18.43)	231.73
	40-49	126	(18.61)	15,980	(14.67)	190.48
	30-39	76	(11.23)	14,629	(13.43)	207.65
	20-29	88	(13.00)	16,290	(14.95)	239.33
	10-19	70	(10.34)	7,524	(6.91)	152.29
	0-9	34	(5.02)	4,657	(4.27)	112.25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가능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2021, p.13.

○ 누적 사망자의 경우 80세 이상 연령층이 976명(55.30%)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적을수록 사망자 비율 및 치명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사망자 비율이 95.18%로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 확진자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4>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04.10. 기준)

(단위: 명)

구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	(100)	1,765	(100)	1.62
성별	남성	1	(100.00)	878	(49.75)	1.62
	여성	0	(0.00)	887	(50.25)	1.62
연령	80세 이상	1	(100.00)	976	(55.30)	19.89
	70-79세	0	(0.00)	499	(28.27)	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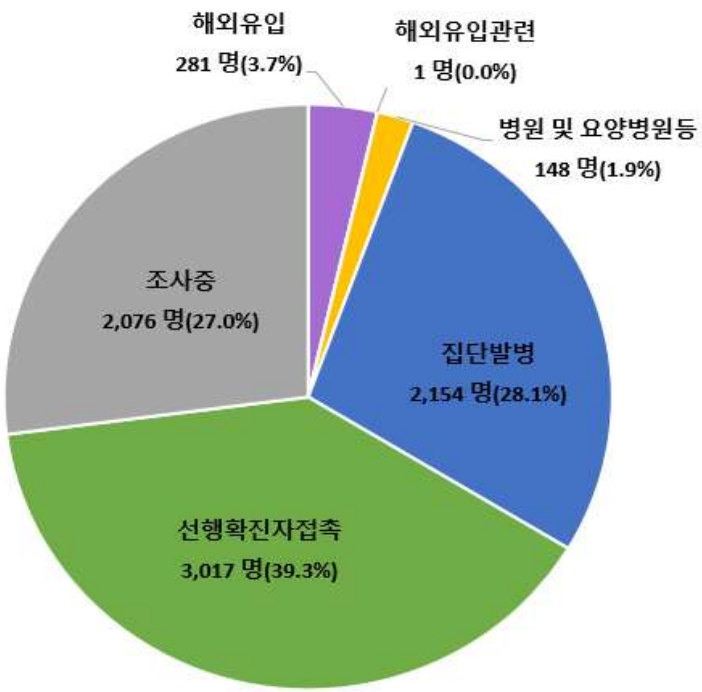
	60-69세	0	(0.00)	205	(11.61)	1.21
	50-59세	0	(0.00)	61	(3.46)	0.30
	40-49세	0	(0.00)	14	(0.79)	0.09
	30-39세	0	(0.00)	7	(0.40)	0.05
	20-29세	0	(0.00)	3	(0.17)	0.02
	10-19세	0	(0.00)	0	(0.00)	0.00
	0-9세	0	(0.00)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출처〉 질병관리청(2021).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p.13.

○ 8월 2차 대유행 이전까지는 해외유입을 통한 확산이 유의미한 원인으로 보이기도 하였으나 집단발병 및 지역감염이 증가하면서 국내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선행확진자접촉과 집단발병이 67.4%로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사람 간 접촉이나 모임 등을 통한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3> 최근 2주간 주요 감염경로 구분(04.10. 기준)



〈출처〉 질병관리청(2021).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p.17.

<표5> 주요 집단 발생 현황(04.10. 기준)

(단위: 명)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서울	33,857	1,014	12,396	8	12,285	103	11,310	9,137	201	
부산	4,301	156	2,560	12	2,490	58	906	679	56	
대구	9,063	169	6,684	4,512	2,164	8	1,193	1,017	5	
인천	5,335	269	2,295	2	2,283	10	1,861	910	24	
광주	2,234	144	1,769	9	1,754	6	161	160	1	
대전	1,523	58	733	2	730	1	452	280	13	
울산	1,258	100	861	16	840	5	186	111	25	
세종	325	27	139	1	137	1	64	95	4	
경기	30,197	1,674	11,915	29	11,806	80	10,190	6,418	202	
강원	2,444	81	1,263	17	1,245	1	718	382	6	
충북	2,317	110	1,240	6	1,227	7	573	394	12	
충남	2,763	188	1,383	0	1,382	1	724	468	15	
전북	1,656	119	1,121	1	1,119	1	211	205	23	
전남	963	77	666	1	654	11	118	102	7	
경북	3,672	186	2,512	565	1,943	4	552	422	26	
경남	3,157	168	1,977	33	1,911	33	573	439	46	
제주	653	37	391	0	390	1	123	102	7	
검역	3,227	3,227	0	0	0	0	0	0	4	
합계	108,945 (%)	7,804 (7.2)	49,905 (45.8)	5,214 (4.8)	44,360 (40.7)	331 (0.3)	29,915 (27.5)	21,321 (19.6)	677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
  * 서울 (646), 경기 (394), 인천 (52)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
  * 서울 (142), 경기 (134), 대구 (103) 등
- 클럽 관련(277)
  * 서울 (139), 경기 (59), 인천 (54) 등
- 리치웨이 관련(210)
  * 서울 (122), 경기 (57), 인천 (24)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
-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
  * 경기 (129), 서울 (77), 인천 (8) 등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6)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200)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
- 충북 지자체 병원 관련(472)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4)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6)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관악구 직장/인천 집단생활 관련(69)
- A교회 및 집회관련(214)
- 경기 성남시 노래방 관련(52)
- 경기 화성시 가정어린이집 관련(58)
- 강원 속초시 어린이집 관련(54)
- 강원 속초시 필라테스/줌바댄스 관련(53)
- 충북 제천시 사우나 관련(64)
- 부산 유흥주점 관련(362)
- 부산 연제구 노인복지센터 관련(56)
-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81)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259)
- 경남 거제시 유흥업소/기업 관련(209)

〈출처〉 질병관리청(2021),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p.19.

▢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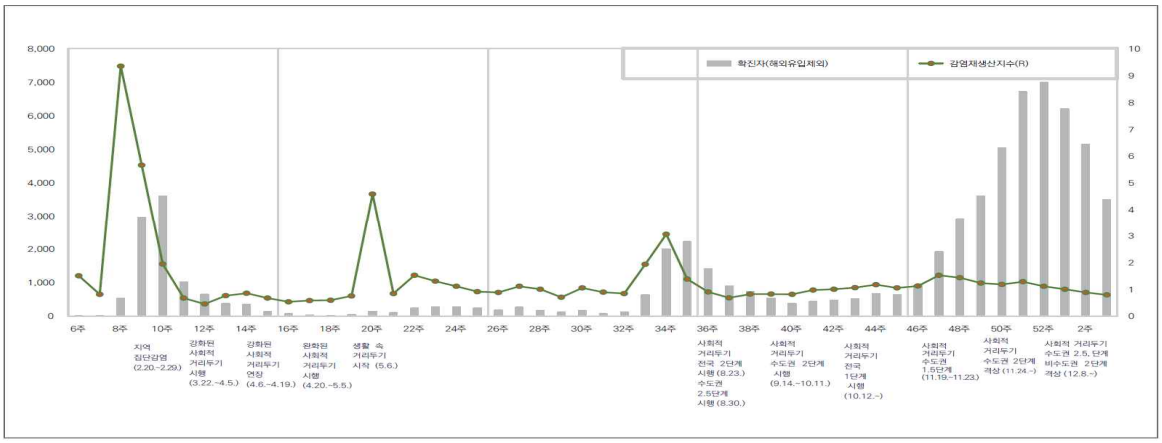
○ 감염재생산지수(R)는 '집단 내 감염성이 있는 환자 1명이 전파가능 기간에 전염시키는 평균 사람 수'를 의미함[2)]

- 감염재생산지수(R)는 R =P(감염될 확률) × C(접촉률) × D(기간)으로 표현이 가능함
- 감염될 확률(P)는 치료제 사용, 마스크 사용 등으로 줄일 수 있는 변수이며 접촉률(C)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대응정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임
- 감염재생산지수(R)는 R〉1일 때 감염자 1명이 1명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음을 뜻하며 확산이 진행 중임을 의미하며 반대로 R〈1일 때는 감염자 1명이 1명 이하로 감염시킬 수 있음을 뜻하며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함

○ 감염재생산지수는 대규모확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높아지며 사회적거리두기가 높아지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3)]

- 코로나 사태 초기 1차 대유행 당시 9.3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3월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정책의 효과로 0.67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여러 차례의 집단감염 사례와 재유행 위기로 인하여 1을 상회하는 기간들이 증가하기 시작함
- 질병관리청에서는 2021년 4월 5일 기준 감염재생산지수가 모든 권역에서 1을 넘는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재차 대유행이 오는 것을 경고함

<그림4> 국내 감염재생산지수 현황(02.04. 기준)



〈출처〉 유명수·김연주·백수진·권동혁(2021). "감염재생산지수 개념 및 방역정책에 따른 변화". 주간 건강과 질병, 14(6): 282-289.

2) 유명수·김연주·백수진·권동혁(2021). 감염재생산지수 개념 및 방역정책에 따른 변화. 주간 건강과 질병, 14(6): 282-289

3) 산출 시 세대기는 WHO-PAHO(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에서 제시하는 평균 4.8일, 표준편차 2.3일의 감마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함(유명수·김연주·백수진·권동혁, 2021)

Ⅱ. 고양시 코로나19(COVID-19) 발생 현황 및 분석

▢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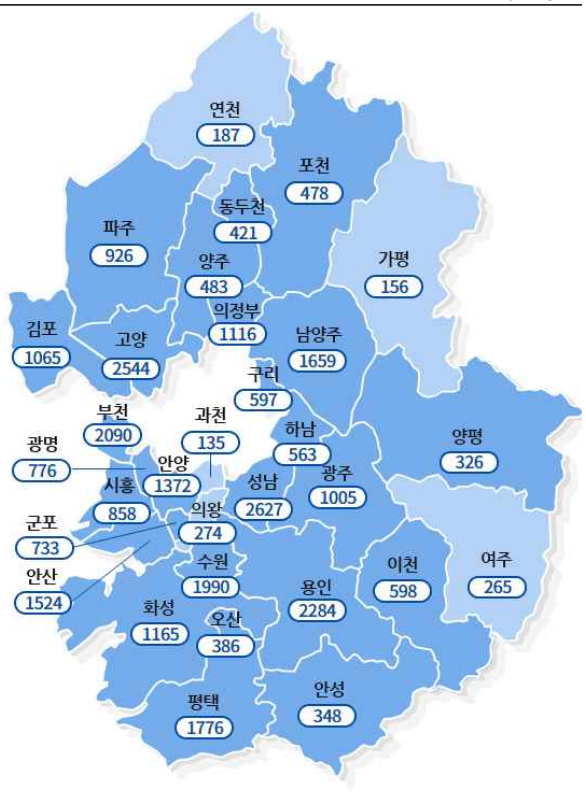
○ 4월 13일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성남이 2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광주(20명), 고양(14명), 수원(13명) 순으로 나타남

- 누적확진자 수는 성남시가 2,6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2,544명), 용인(2,284명). 수원(1,99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확진자의 경우 평택이 6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106명), 고양(99명), 수원(97명) 순으로 나타남
- 최근 평택 해외 확진자의 증가추세는 주한 미군 소속 관계자 간 발병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표6> 경기도 31개 시·군별 확진자 발생 현황(04.13. 기준)

(단위: 명)

구분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상	남양주
신규	13	14	10	21	3	2	9	13
누계	1,990	2,544	2,284	2,627	2,090	1,524	1,165	1,659
국내	1,893	2,445	2,178	2,566	2,046	1,432	1,076	1,619
해외	97	99	106	61	44	92	89	40
구분	**안양**	**평택**	**의정부**	**파주**	**시흥**	**김포**	**광명**	**광주**
신규	12	5	4	5	9	3	3	20
누계	1,372	1,776	1,116	926	858	1,065	776	1,005
국내	1,334	1,104	1,099	878	828	1,020	757	988
해외	38	672	17	48	30	45	19	17
구분	**군포**	**이천**	**오산**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신규	0	1	1	4	0	7	0	3
누계	733	598	386	563	483	597	348	478
국내	721	583	359	555	469	587	310	466
해외	12	15	27	8	14	10	38	12
구분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신규	1	3	0	0	0	2	0	
누계	274	265	326	421	135	156	187	
국내	267	260	321	414	131	145	187	
해외	7	5	5	7	4	1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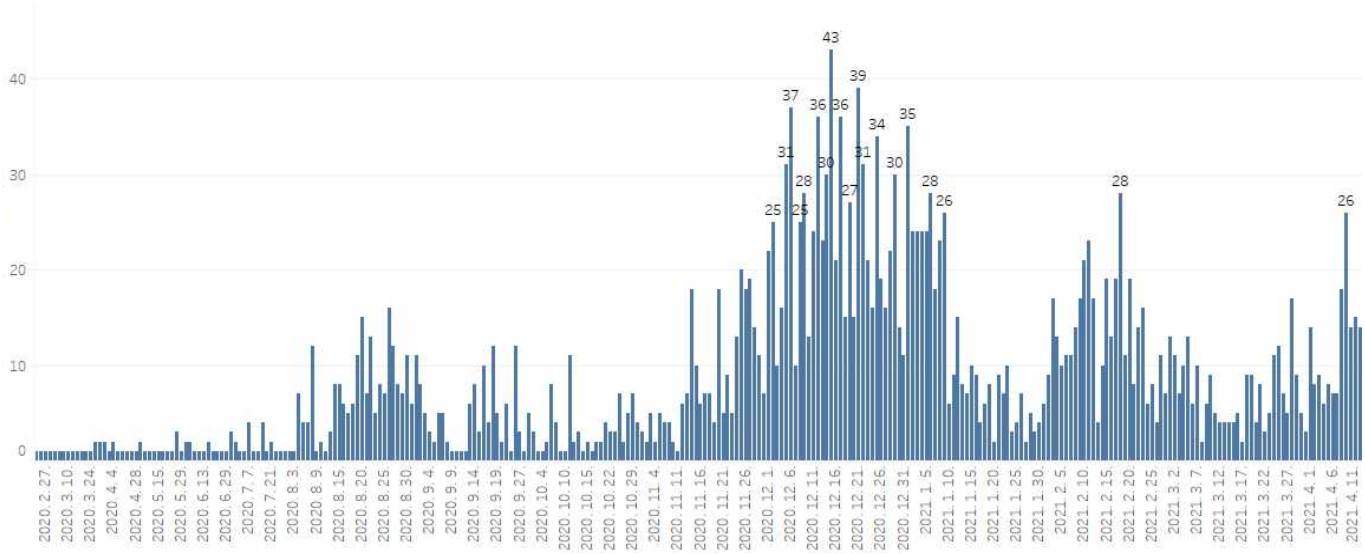
〈출처〉 경기도.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자 현황 (http://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0&menuId=2909) 접속일: 2021.04.13.

〈출처〉 경기도. 경기도 31개 시·군별 확진자 발생 현황

○ 고양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월 2차 대유행 기간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였으나 11월 3차 대유행때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함

- 전국 확진자 수와 마찬가지로 3차 대유행이 끝난 이후에도 2차 대유행 때만큼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2월과 4월 초 확진자 수 증가폭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음
- 확진자 수가 25명 이상 발생한 날은 19일이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5> 고양시 일자별 확진자 현황(04.13. 기준)



〈출처〉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자 현황 자료를 재구성
(http://www.gidcc.or.kr/%ec%bd%94%eb%a1%9c%eb%82%98covid-19-%ed%98%84%ed%99%a9/) 접속일: 2021.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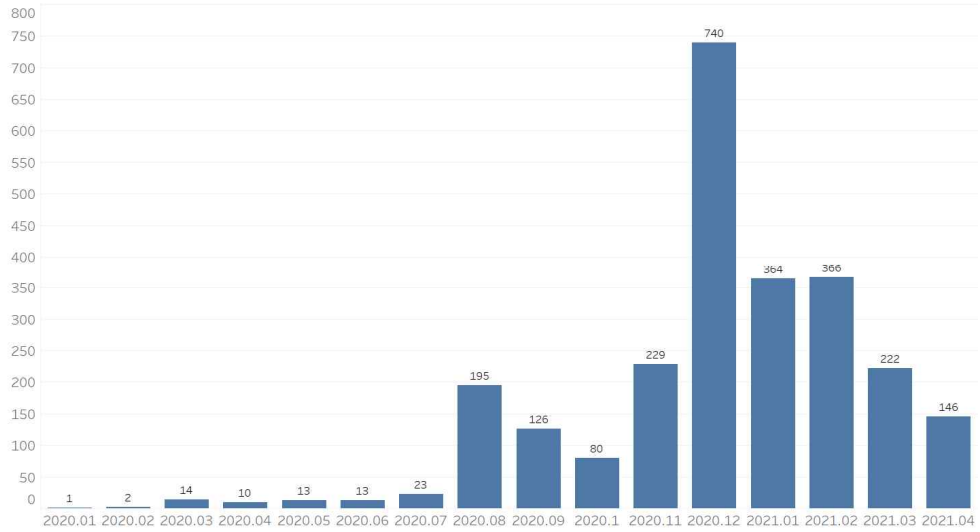
<표7> 월별 확진자 발생 현황(04.13. 기준)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고양시	1	2	14	10	13	13	23	195	126	80	229	740	364	366	222	146
전국	4	3,146	6,636	979	703	1,331	1,506	5,642	3,865	2,713	7,769	26,564	17,494	11,495	13,430	7,605

〈출처〉 통계청. 코로나19 일별 발생 현황,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자 현황 자료를 재구성
(http://www.gidcc.or.kr/%ec%bd%94%eb%a1%9c%eb%82%98covid-19-%ed%98%84%ed%99%a9/) 접속일: 2021.04.13.

<그림6> 고양시 월별 확진자 현황(04.1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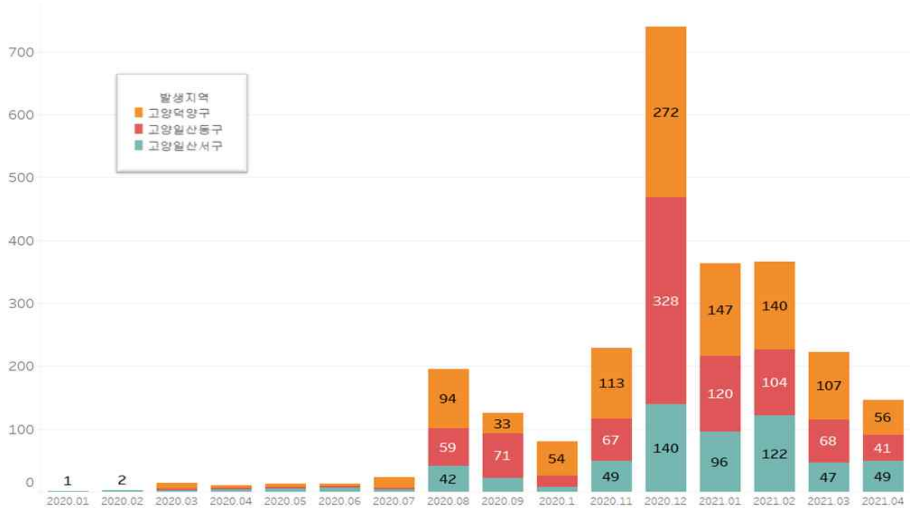


〈출처〉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자 현황 자료를 재구성 (http://www.gidcc.or.kr/%ec%bd%94%eb%a1%9c%eb%82%98covid-19-%ed%98%84%ed%99%a9/) 접속일: 2021.04.13.

○ 8월 2차 대유행과 11월 3차 대유행 당시 덕양구와 일산동구에서 큰폭으로 증가

- 상대적으로 일산서구의 확진자는 적은 편으로 나왔으나 지역감염이 유행하던 12월과 2021년 1-2월에는 확진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됨

<그림7> 고양시 구별·월별 확진자 현황(04.1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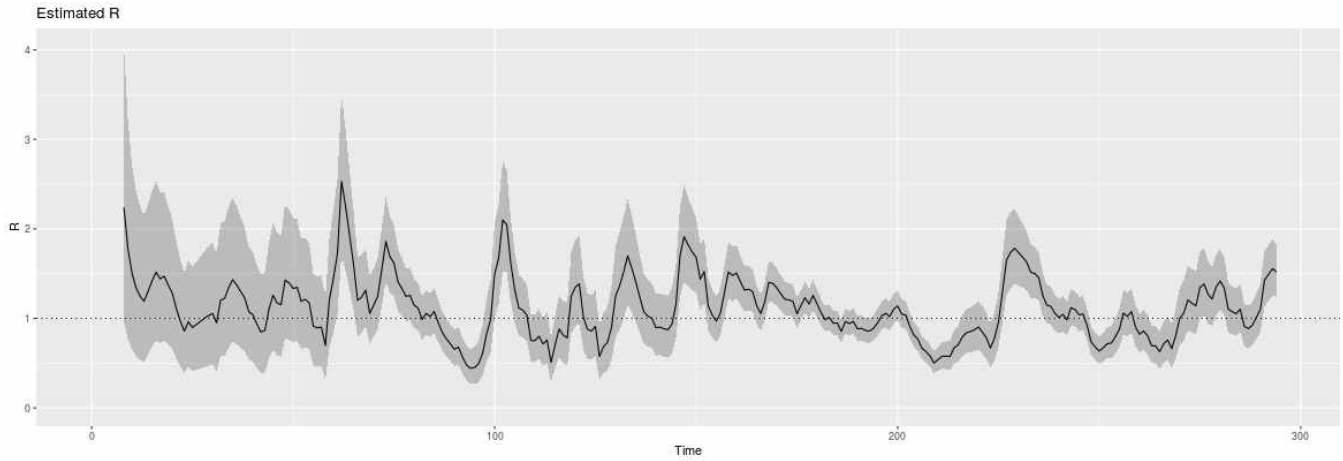


〈출처〉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자 현황 자료를 재구성 (http://www.gidcc.or.kr/%ec%bd%94%eb%a1%9c%eb%82%98covid-19-%ed%98%84%ed%99%a9/) 접속일: 2021.04.13.

○ 고양시의 감염재생산지수는 최대 2.26, 최소 0.44으로 나타났음[4)]

- 고양시 감염재생산지수는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최근 1주간 1.52를 기록하였으며 4월 들어 1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등 3차 대유행이 끝난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8> 고양시 감염재생산지수 현황(04.13. 기준)



〈출처〉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자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

4) 고양시 일자별 확진자 수를 기반으로 WHO와 하버드 대학에서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산 (산출 시 세대기는 WHO-PAHO(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에서 제시하는 평균 4.8일, 표준편차 2.3일의 감마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https://harvardanalytics.shinyapps.io/covid19/ 접속일: 2021.04.19.

Ⅲ.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여 접종이 이루어짐

- 백신 접종은 1차와 2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첫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하였지만 이후 '화이자' 백신도 추가하여 접종을 진행하고 있음
-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1차와 2차 접종간격은 8~12주이며 화이자 백신의 1-2차 접종간격은 21일로 이루어짐

○ 4월 1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일반 고령층에도 예방접종이 시행되었으며 4월 10일 기준 우리나라 신규 예방접종 인원은 1차 33,404명, 2차 7,278명으로 집계됨

- 지역별 접종자 수는 경기가 6,6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4,648명), 경북(2,180명), 전남(2,117명)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접종비율은 울산이 34.2%로 가장 높고 광주(33.1%), 인천(25.9%), 세종(24.4%) 순으로 집계됨

<표8> 국내 접종자 현황(04.10.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신규	1차	33,404	4,648	1,869	1,884	1,703	1,192	729	736	349
	2차	7,278	321	844	678	1,496	101	1,056	709	208
누계	1차	1,148,060	176,146	87,893	50,728	65,063	46,234	33,253	27,087	4,720
	2차	59,422	13,476	4,161	2,744	8,094	1,136	3,516	2,819	78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차	6,689	1,483	2,012	1,560	1,654	2,117	2,180	1,783	816
	2차	44	0	732	7	263	69	328	222	200

누계	1차	239,673	41,895	42,001	54,525	58,471	61,176	60,001	83,857	15,337
	2차	9,772	1,178	2,534	1,520	1,172	816	2,109	1,588	2,005

* 3월 9일, 12일, 18~19일, 23~26일, 29~31일, 4월 1~2일, 5~8일 접종자 998명이 4월 9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4.9)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출처〉 질병관리청(2021),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p.22.

<표9> 국내 접종률 현황(04.10. 기준)

(단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접종률	1차	22.4	20.2	23.8	21.0	25.9	33.1	24.8	34.2	24.4
	2차	1.2	1.5	1.1	1.1	3.2	0.8	2.6	3.6	4.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접종률	1차	22.0	21.1	23.1	21.3	23.6	21.6	17.2	23.9	22.8
	2차	0.9	0.6	1.4	0.6	0.5	0.3	0.6	0.5	3.0

* 3월 9일, 12일, 18~19일, 23~26일, 29~31일, 4월 1~2일, 5~8일 접종자 998명이 4월 9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4.9)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출처〉 질병관리청(2021),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p.22.

<그림9> 지역별 접종자 수 및 접종률 현황(04.10.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2021),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p.22.

Ⅳ. 고양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및 대응정책

▢ 고양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5)]

○ 고양시는 2021년 2월 26일 명지병원, 일산병원, 암센터 등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종사자 2,184명, 요양·정신병원 4,353명, 요양시설 3,42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함

- 2월 2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100명분과 27일 5,600명분을 확보하였으며 백신접종 시작은 26일부터 진행됨
- 고양시는 3월 24일 총 8,869명이 2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 2,535 바이알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고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요원 10명이 투입되어 하루 600명까지 예방접종 실시계획을 수립함

<그림10> 고양시 코로나19 안심예방접종센터 운영 사례

〈출처〉 고양뉴스(2021). "고양꽃전시장에 '경기북부 제1호 코로나19 지역접종센터' 3월 말 개소", 보도자료(2021.03.11.), 고양시(2021), "경기북부 제1호 접종센터 본격가동", 고양소식 2021년 5월호.

○ 4월 1일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시행된 후 예방접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양시는 고양꽃전시관을 코로나19 안심예방접종센터로 지정하고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함

- 고양시는 3월 24일 총 8,869명이 2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 2,535 바이알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고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요원 10명이 투입되어 하루 600명까지 예방접종 실시계획을

5) 경기북도탑뉴스(2021). 고양시, 26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스타트. 보도자료. 2021.02.25.
고양신문(2021). 고양꽃전시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문열어. 보도자료. 2021.04.01.

수립함

- 고양시는 4월 1일 일산동구 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을 경기북부 지역의 제1호 예방접종센터로 운영한 데 이어, 4월 15일에 덕양구 어울림누리 체육관을 추가 예방접종센터로 개소함. 어울림누리 체육관에 개소한 코로나19 안심 예방접종센터에서는 1일 600명을 기본으로 최대 1,800명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운영함
- 2호 안심 예방접종센터에는 안정적인 백신접종을 위해 의사4명·간호사8명·응급구조사1명의 의료인력과 4명의 공무원과 30명의 행정보조 등 총 47명의 인력이 배치됨. 또한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9일에 거쳐 1차 접종을 시작하고, 3주 뒤인 5월 6일부터 15일까지 9일에 거쳐 2차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75세 이상 어르신 3,223명과 노인시설 종사자 및 어르신 1,210명 등 총 4,433명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임
- 고양시는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의 규모가 유지되는 등 방역 대응과 함께 신속한 백신 접종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5월에는 일산서구 고양체육관에 3번째로 코로나19 안심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할 예정임

▢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고양형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 2020년 12월 고양시는 모든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 내년 2월 중순까지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 고양시는 2019년 사회조사 보고서 기준, 고양시민의 연령별 서울 출퇴근 비율이 20대 38.3%, 30대 45.2%, 40대 37.6%로, 경기도 평균 서울 통근·통학 비율(20%)을 크게 상회하여, 2020년 11월 기준 고양시 확진자 가운데 타지역(주로 서울) 발생은 65%로 나타남
- 또한 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80개의 요양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과 12월 미소아침요양병원(82명), 아름다운인생요양원(42명), 팰리스요양원(30명) 등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사례가 보고됨. 고양시 내 요양시설은 단독 건물보다는 주로 상가 건물 일부에 입주해 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방문·접촉자가 많고 감염병 예방 관리 측면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함
- 이에 고양시는 2021년 2월 14일까지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각종 소모임과 행사 참석 금지,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함[6]

▢ 고양시의 코로나19대응 '안심'정책 사례 개요[7]

6) 고양시(2020). “고양시, ‘요양시설 종사자 이동제한 행정명령’ 발령 등 2.5단계보다 강력한 거리두기 추진”, 보도자료(2020.12.10.)

7) 일간경기(2020). 고양시 적극행정으로 일냈다. 보도자료(2020.12.02.)

○ 고양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심'정책 사례는 '적극행정' 중 하나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고양시는 안심카 선별진료소, 윈도우 드라이브스루,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안심숙소 등 전국 최초이자 적극행정 우수사례 타이틀을 가진 정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법과 관례를 따르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인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음
- 특히 안심카 선별진료소의 경우 기존의 법이나 시행규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다른 정책에서 찾기 힘든 새로운 개념의 방역대책으로 K-방역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

<표10> 고양시 코로나19 대응정책 개요

대응정책	내용
안심카 선별진료소	-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선별진료소에 도착하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접수·문진·처방까지 받는 새로운 형태의 선별진료소
안심넷-보건의료네트워크	- 호흡기전담 1차 의료기관과 병원 선별진료소, 보건소 선별진료소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존보다 빠른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 출입하는 인원이 각 사업체에서 지정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바로 출입이 등록되는 시스템
안심숙소	- 해외 입국자 가족이 따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해외 입국자와의 2주간 분리생활을 돕는 제도

▢ 고양시 코로나19 대응정책

○ 안심카 선별진료소[8)]

- 코로나19 판데믹 사태 초기에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선별진료소의 혼잡이 가중화되었으며 오랜 대기시간, 대기자 간 감염 위험, 신분노출로 인한 검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
- 특히 선별진료소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하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수를 늘리기 어려워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안심카 선별진료소'의 경우 빈 공간만 있으면 진료소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진료소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며 급증하는 확진자를 대비할 수 있었음

8) 고양시(2020). 고양시, 전국최초 '고양 안심카(Car) 선별진료소' 운영시작... 차안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수부터 검진·처방까지. 보도자료(2020.02.28.)

-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이러한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접수, 문진, 처방을 받는 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대기자 간 전염차단, 진료 시 의료진 보호, 대기자 불편 최소화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
- 주교동 제1공용주차장에서 2020년 2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1차 운영을 하였으며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2차로 추가 운영함
-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1차(2.26-4.19) 3,478명, 2차 2,021명으로 총 95일간 5,499명이 이용하였으며 의심환자 3,821명을 검체 채취하여 12명의 확진환자를 가려냄
-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대통령상 수상, IPO 표준안 추진, 해외 언론보도 등 K-방역모델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국가 중앙사고수습본부 표준운영모델 사례로 채택됨

<그림11>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 현장사진

〈출처〉 고양시(2020). "고양시, "전국 최초 '고양 안심카(Car) 선별진료소' 운영시작... 차안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수부터 검진·처방까지". 고양시 보도자료(2020.0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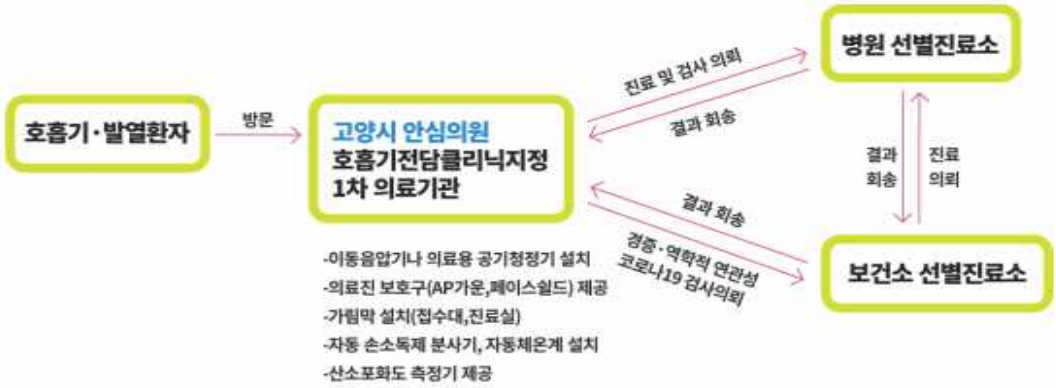
○ 안심넷 - 보건의료 네트워크[9)]

- 안심넷은 고양시 4개 의약협회와 고양시 선별진료소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코로나19의심환자가 약국 및 병원을 방문할 시 검사의뢰서를 교부하여 선별진료를 권고하는 제도
- 앞서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고양시 민·관 의료협력체'를 구성하였으며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안심카 선별진료소' 및 1차 의료기관 간 검사의뢰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였음
-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되면서 호흡기 및 발열환자 진료체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호흡기 질환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 전달체계를 형성
- 이에 따라 고양시 안심의원(호흡기전담 클리닉지정 1차 의료기관)은 호흡기·발열환자를 진료하고 해당 내용을 병원 선별진료소,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 선별진료소에서는 받은 내용을 검토하

9) 고양시 보건소 (2021). 고양시 코로나19 "안심넷"과 "모바일 문진표". 보도자료. 2021.12.05.
뉴스피크 (2020). 고양시, 코로나19 검사의뢰시스템 '고양 안심넷' 운영. 보도자료. 2020.07.21.

여 환자와 코로나19의 연관성을 안심의원에 제공

<그림12> 고양시 보건의료네트워크 운영체계



〈출처〉 고양시 내부자료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출입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출입장소별 안심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출입자의 전화번호와 출입시간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제도로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 2020년 9월 2일부터 관내 전통시장(원당, 일산, 능곡)을 시작으로 시, 구청, 동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 11월 26일부터는 고 위험시설 등 다중출입시설까지 확대 시행됨
- 초기 단계에는 고양시 자체 전화회선 및 서버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KT 지능망 회선으로 변경되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출입자 관리 우수사례로 소개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용함
- 기존의 출입관리시스템인 수기대장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며 QR인증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음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의 경우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정보 취약계층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낮아짐
- 특히 기존의 QR코드를 이용할 경우 명부를 해독하는 작업과정에서 보건소에서 QR코드 관리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관리기관에서 QR코드를 해독하는 등의 중간 과정이 존재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시간이 하루 이상 걸렸지만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는 보건소 역학조사관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입자를 조회할 수 있어 행정상 효율이 높아지고 경로파악에 걸리는 시간을 크

게 단축됨[10)]

<그림13>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 홍보포스터

〈출처〉 고양시청 트위터(2020)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홍보포스터.
고양시민원콜센터 트위터(2020)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홍보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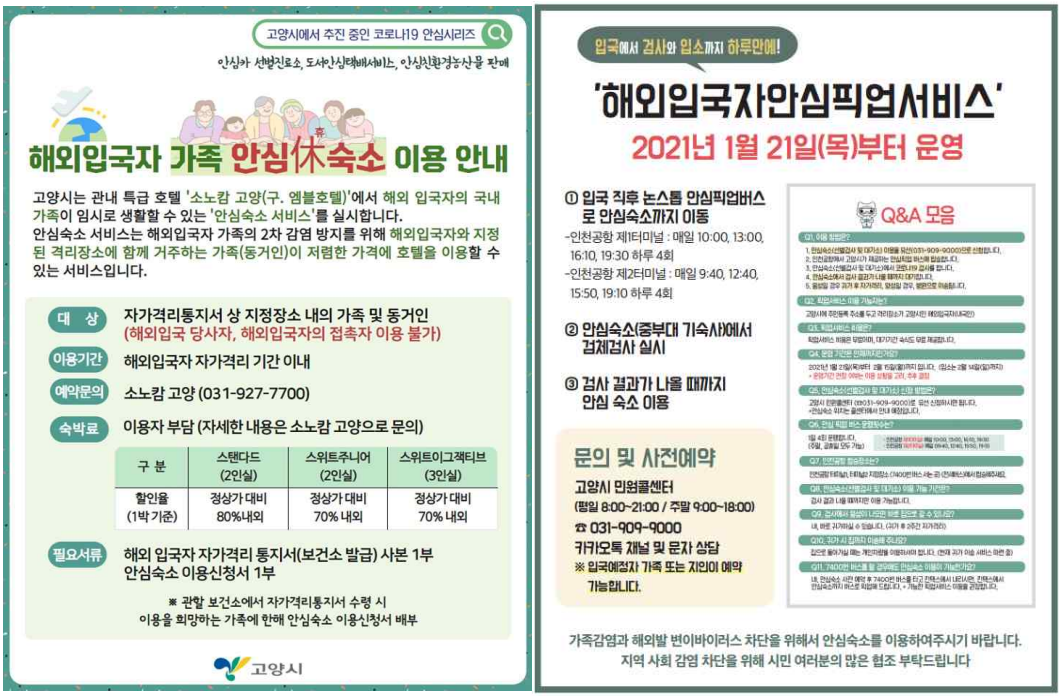
○ 안심숙소[11)]

- 2020년 4월 1일부로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와 입국자 가족 간 분리생활이 불가피해짐
- 이에 고양시에서는 4월 2일 소노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입국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가의 20% 가격으로 제공하는 안심숙소 정책이 시행됐으며 40여일간 약 209명이 985박을 사용함
- 확진자가 급증과 가족 간 감염이 높아짐에 따라 킨텍스 캠핑장 카라반과 인근 야영장, 고양시 소유 공공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가족 간 감염률을 낮추기 위한 안심숙소 확대공급이 이루어짐
- 2020년 12월 고양시 3개 고양시 내 대학교(중부대, 항공대, 농협대)와의 협약을 통해서 기숙사 180여실을 추가 확보하고 2021년 1월부터 해외 입국자를 통한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안심숙소까지 운영하는 '안심 픽업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해외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함
- 이후 안심숙소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서울, 부산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음

10) 한국경제 (2021). 고양시 "코로나19 출입관리에 QR코드보다 안심콜이 효과적". 보도자료(2021.03.20.)

11) 고양시청(2020). 고양시, "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거처 마련..."소노캄고양호텔과 '안심숙소 이용 업무 협약' 체결. 보도자료. 2020.04.03.
고양시청(2020). 고양시 3개 대학교 기숙사 '코로나19 격리·방역시설'로 제공한다. 보도자료. 2020.12.31.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자료.

<그림14> 고양시 안심숙소 안내포스터



〈출처〉 고양시(2021). 고양소식, 2021년 2월호(2021.02.18.)
고양시(2020). "해외입국자 가족 안심숙소 이용안내", 고양시 코로나19 정책공유자료(2020.0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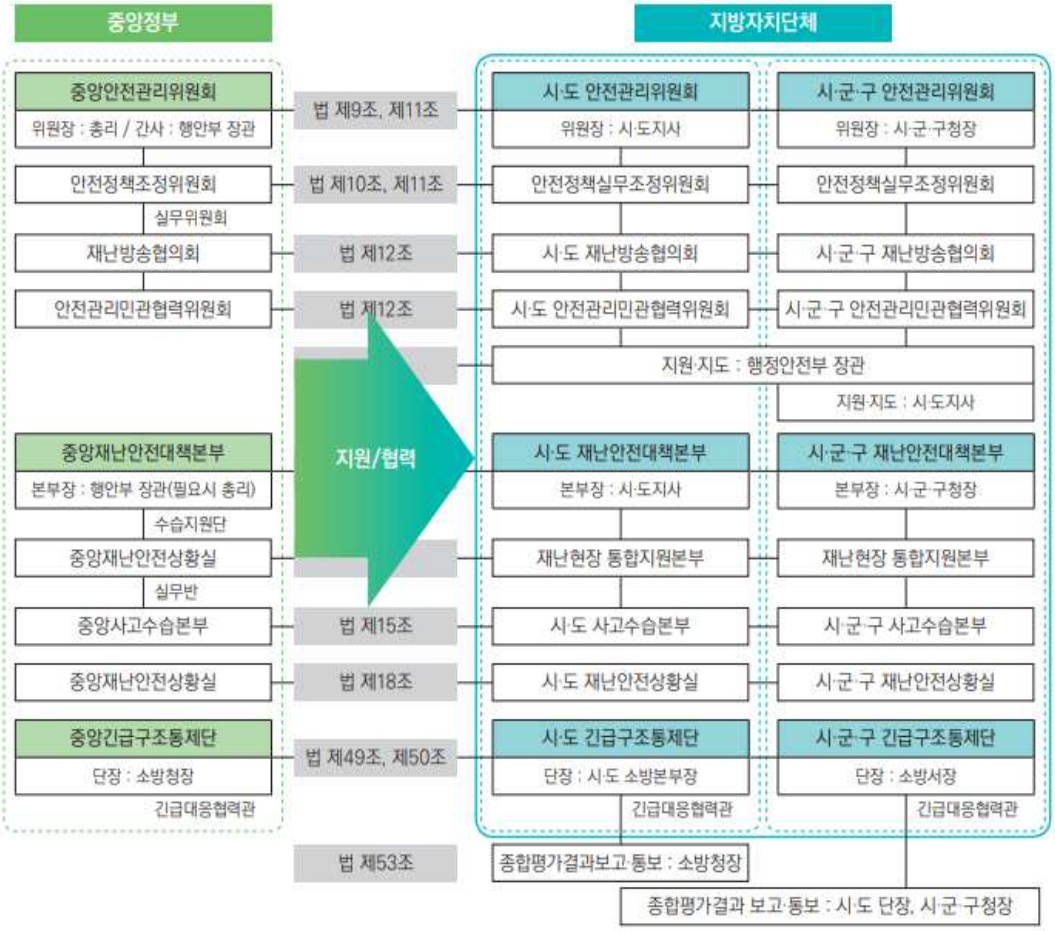
V.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 지자체 차원의 권한 확대 필요성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14〉와 같이 관심-주의-경계-심각이라는 감염병 재난 수준과 관련된 네 가지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각의 감염병 재난 관리 및 대응 조직이 구성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이를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감염병 재난 관련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구조 및 관리체계는 중앙정부가 재난 대응·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측면에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계획과 관련 전략을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복구 등의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코로나19의 사례와 같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신종 감염병 재난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총괄적인 지휘·감독, 관리의 역할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이에 대한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림15>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출처〉 박재희(2020),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재난 대응의 진단 및 과제", p.2.

- 코로나19 사례에서의 경험과 같이 진단·검사, 추적, 격리, 치료 등 일련의 방역 관리 활동들이 초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때 성공적인 통제·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역 활동을 현장에서 적용·시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됨
- 또한 코로나19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종 감염병 재난은 일상 모임이나 직장 및 대중교통, 종교활동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쉽게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됨. 이에 공공과 민간, 공공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전국적 관리 뿐만 아니라 지역적, 현장 중심의 처방이 강조되는 동시에 전문가 중심의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 행위자인 주민중심의 방역 대응·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집단(의료계),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비롯한 지자체 대상의 권한 확대 노력이 요청됨
- 고양시의 경우 국내 3번째 확진 환자가 고양시에 거주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보다도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며, 서울시와 인접한 수도권 지역이자 인구 100

만 이상의 대도시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한 진단·검사의 필요성이 강조됨.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지닌 한계로 인해 시·도를 기준으로 설립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의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민간의료검사기관 가운데 일산병원과 명지병원이 추가 지정함에 따라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게 됨

-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유행과 위험으로 인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시적인 조치라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감염병 위험가능성에 대비하여 경기 북부 지역을 고려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원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됨
- 실제로, 2021년 현재에도 민간의료기관의 확보 확대를 통한 진단·검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진단검사 인력의 부족 문제와 과중한 업무 문제, 검사·의료진들의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군산·익산 등의 지역에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소재한 위치상 교통 및 접근성의 불편과 검체 검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분원을 요구하는 사례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경기 북부권의 보건환경연구원 분원 고려나 관련 시설 등의 지원 필요성이 강조됨

▢ 보건소 중심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및 보건의료 대응 네트워크 구축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및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하면 감염병 관리 사무와 관련하여 고양시와 같은 기초지자체에서는 전염병 예방조치와 관련 홍보·교육, 예방조치와 방역·소독 등 보건소 기관이 최일선에서 직접적이고 현장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고양시와 같은 기초지자체에서는 감염병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감염관리 등의 조치가 중요하게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역 내에서 감염병 관리에 대한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 및 기능이 우선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 고양시 내 보건소 조직체계 및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100만 이상의 고양시민과 고양시의 코로나 대응 관련 사회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진단할 수 있으며, 감염병관리팀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유행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로 인하여 다른 부서에서도 기존의 업무를 일부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당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피로감 등을 우려할 수 있음
-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지속으로 인하여 비대면 플랫폼과 이에 기반한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지속적인 돌봄서비스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강화로 인하여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가 요청되는 등 코로나19가 야기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상의 관리 역량이 요구됨
- 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상 업무와 감염병 재난 발생시를

대비한 인력 확충 및 재배치에 따른 업무 조정, 대응 방안 등을 고려한 매뉴얼 수립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소를 감염병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운영하는 한편,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들과 의료계, 고양시 내 관계부서(재난대응과 등), 시민사회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관리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백신 접종 확대 및 기피현상 해소 노력[12)]

○ 부정확한 정보 유통으로 인한 백신 접종 기피현상(vaccine hesitancy)이 국제적으로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집단면역 획득을 위한 접종률 제고에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찬성 비율은 2020년 10월 당시 약 83%로 나타나, 국제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긍정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부작용 우려 등 백신 도입 및 접종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2021년 1월에는 67%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백신 접종 의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놓여 있어(이소연, 2021)[13)],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코로나19 유행 국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의 확대와 이를 통한 집단면역체계 형성이 중요한 만큼 정부의 백신 접종 정책에 대한 신뢰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 이를 위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속적이고 투명한 정보제공, 해외 접종 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찰·분석 등이 요구됨(장영옥·윤형준, 2021). 또한 부작용 등 접종의 비용 대비 집단 감염 및 사회적 확산 방지, 유행 종식과 일상으로의 복귀 등 접종의 효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연령별로 접종 의향에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연령별 의식 전환을 위한 대비 마련이 요구됨

▢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노력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과 일상으로의 복귀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울감과 불안, 무기력증 등 '코로나 블루'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커지고 정신 건강 및 심리적 방역 관리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음

-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심리방역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선정 및 특별 지원·관리 방안, 일반 시민 대상 통합적 서비스 창구 운영 방안,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경험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극복, 지원 목적의 상담 강화,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12) 장영옥·윤형준(2021).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 및 2021년 경제회복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포커스, 4(7): 1-15.

13) 이소연(2021), "코로나19 25차 인식조사(2021년 1월 3주차)",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https://hrcopinion.co.kr/archives/17523 (접속일: 2021.04.15.)

고양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29호

발행일 2021.04.30.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TEL 031.8073.8341
FAX 031.8073.0710
HOMEPAGE www.gyri.re.kr
ADDRESS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고양시정연구원(GYRI)**

•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인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